

축산업계

소식

수입 냉장육 유통기한 한계 목살 협상타결

지난 7월 20일 타결된 한·미간 식품 유통기한 협상 이전에 국내 연구소의 실험결과 진공포장 냉장육의 저장기한이 62~72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통기한을 90일로 확정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와같은 사실은 국회 농림수산위가 최근 정부로부터 입수한 "진공포장 냉장육의 유통기한 설정에 관한 연구 중간보고서"에서 드러났다.

또한 정부는 이 연구결과를 은폐하기 위해 관련자료를 비밀문건으로 처리하고 연구자에게는 외부유출 금지 각서까지 받아내 관련업계는 물론 국민들까지 분노케하는 작태를 보였다.

농림수산부는 지난 3월 31일 산하 식품개발 연구원에 긴급 용역을 실시하여 미국에서 도축한 제품을 국내에서 저장시험한 결과 0℃에서 제품별로 62~72일이 유통한계 기한으로 나타

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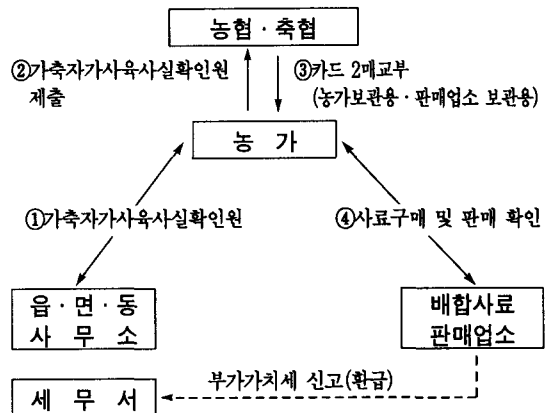
이에 농림수산부는 이 결과를 보건복지부 및 관계부처에 송부했으나 미국측 요구와 기한 차가 너무 크고 농림수산부 자료 불신 등의 이유로 목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회 농산위 소속 의원들은 협상 전과정의 공개와 재협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업축산농가에 부가세 면제 배합사료 국회통과

대다수 축산농가의 큰 관심사이던 배합사료 부가세 영세율 적용 범위가 당초 발표인인 부업축산농가로 제한하고 농·축협에서 관리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내용이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일단락되었다.

이로써 부업규모 양축가들은 해당지역 읍·면·동장이 발급하는 가축 자가사육 사실 확인원을 받아 농·축협에 반기별로 제출하면 카드를 교부받아 부가세가 면세된 사료를 구입할 수 있다(그림 참고).



〈배합사료 구입카드 발급 및 사료구입 절차〉

농림수산부는 부가세 영세율 적용 배합사료 한도량 기준을 6개월 단위로 축종별 1일 공급량 기준에 의거 산출하여 카드에 기재토록 했으며, 축종별 1일 공급량 기준은 다음과 같다.

축 종	구 분	1일공급기준량
닭	성 계	130g
	병아리(생후3주)	70g
	중 계	150g
소	성 우	10kg
	송아지(생후 6개월)	5kg
	임신우·종모우	7kg
젖소	암 소	12kg
	송아지	5kg
	고능력우	15kg
돼지	성 돈	2.5kg
	포유돈	4~6kg
	이유전자돈	0.7kg
오리		230g
면양·산양		500g
토끼		400g

수입 닭고기 MMA물량 처리대책 부심

올 최소시장접근방식(MMA)에 따라 국내에 의무적으로 들여와야 할 닭고기 물량이 수입업체들의 수입기피 현상으로 인해 관계 당국에서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지난 3월 9일과 29일 수입권 공매를 통해 금년 닭고기 MMA물량을 6월과 7월이전에 반드시 수입토록 했으나 7월말 현재 2천3백89톤으로 총 수입물량 7천7백톤의 31%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관계당국에서는 수입기한을 8월 말까지로 1개월 연기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수입 물량이 미진해 또다시 연기를 해주어야 하는 처지에 놓였으나 관련업체와 양축가들의 반발또한 만만치가 않다.

이처럼 수입업체들이 수입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은 지난 여름 성수기때 고가의 닭값을 예상하고 수입신청을 했으나 실질적으로 수입가보다 낮은 시세로 국내 육계시장이 형성되었으며, 수입 닭고기 품질 또한 떨어져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7월말 현재 닭고기 수입현황

업 체 명	건수	중 량(kg)	금 액(\$)
하 립	4	130,400	167,367
삼 성 물 산	10	201,176	350,481
해 마 로	16	303,741	278,923
대 진 식 품	3	40,780	43,686
우 일 산 업	1	19,051	30,660
한 성 기 업	4	79,845	114,770
해 태 상 사	9	170,671	251,075
대 연 식 품	2	35,998	50,396
동 원 산 업	1	35,998	35,710
두 산 상 사	2	39,000	73,320
미국대사관	1	1,846	5,487
미주트레이딩	14	345,196	488,951
부 로 식 품	4	139,721	155,983
삼 성 물 산	7	288,729	390,755
삼 승 축 산	1	17,999	23,398
신 라 식 품	1	54,000	75,870
유 진 글 로 리	2	39,916	51,894
축 험 중 앙 회	11	212,177	269,461
대 구 맥 시 칸	1	17,962	27,841
미 원 통 상	2	38,791	47,710
삼 우 물 산	1	18,506	33,250
삼 원 농 역	1	18,143	31,600
영 육 농 산	1	50,031	81,852
우 인 산 업	2	40,370	54,460
하 전 유 통	2	39,697	67,484
합계	103	2,388,743	3,202,393

축산농가 폭우피해 50억원 이상

농림수산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 집중호우와 태풍 제니스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액이 50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상황을 보면 축사 144동이 전파 또는 반파됐으며 소 99두, 돼지 4천7백94두, 닭 1백30만1천8백55수 등이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충남권의 피해가 심각하여 축사 74동이 파손되고 소 24두, 돼지 1백41두, 닭 92만9천8백70수 등이 폐사했다.

농림수산부와 농촌진흥청은 전국 시·도에 수해복구 지원에 만전을 기해줄 것과 가축전염병 예방을 당부했다.

축협중앙회

두배로 2000워크샵 성료

축협중앙회(회장 송찬원)는 오는 2천년까지 조직 역량을 두배로 증대시킨다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두배로 2000운동'의 공감대 형성과 조직내 분위기 확산을 위해 실시한 워크샵이 8차례에 걸쳐 과장급 이상 직원 420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16일 막을 내렸다.

동회의 이번 행사는 매회 2박3일동안 급변하는 환경속에서 생존전략 차원의 경영혁신을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향후 이와 같은 행사를 하급자까지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 밝혔다.

농수산물유통공사 기능 대폭 개선

농림수산부는 지난 11일 농수산물유통공사

기능 개편방안을 확정하고 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부의 이번 공사 직제개편은 WTO체제를 능동적으로 수용하여 불필요한 무역마찰을 해소하고 수입권 공매로 다양한 품질의 농산물을 보다 계획적으로 시장 원리에 맞게 판매하고 민간 수출회사의 성장으로 장기적인 수출기반을 구축하는데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주요 개편 내역을 보면 시장기능에 맡길 수 있는 직판장, 물류센터 등은 민간에 이양을 하고, 참깨 등 10개의 국영무역대상의 농산물도 단계적으로 수입권을 공매방식으로 전환하여 불필요한 시장개입을 줄여 민간주도의 수입·수출기능을 활성화 하며, 농수산물 수출시 일선에서 진두지휘하던 것을 이선으로 물러나 수출지원프로그램 개발, 해외시장 조사, 홍보, 수출 담당 및 알선 등 수출조정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농수산물무역진흥센터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또한 산지 소비지유통시설의 설치사업과 산지가공, 전통식품사업, 농안기금사업 등 사업 성과에 따라 축산분야, 양곡유통분야로 기능을 확대, 국내 유통업무를 총괄토록 하고 있다.

농수산물유통공사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지난 13일 최근 호주 시드니와 중국 상해에서 개최된 국제식품박람회에 참가하여 총 1천69만3천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호주 시드니에서 개

최된 박람회에서 청하, 인삼주, 삼계탕, 고추장 등의 인기에 힘입어 지난해 참가때보다 15% 늘어난 2백58만6천달러어치를 수출키로 했다.

또한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중국 상해에서 16개국 5백50여 업체가 참가한 박람회에 우리나라는 10개업체에서 삼계탕을 비롯하여 주류, 절임류, 고추가루 등 38개 품목을 전시·홍보하여 지난 대회보다 30%가량 늘어난 8백10만 7천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이로서 유통공사는 올해 들어 현재까지 각종 국제식·음료박람회를 통한 수출계약 실적이 9천 5백63만6천달러에 이르고 있다.

정기국회 개원

농축임업법안 처리 및 국정감사 실시

제177차 정기국회가 1백일간의 회기로 지난

표. 국정감사 일정

날 짜	수 감 기 관
9. 25	농림수산부
26	" (산하기관 포함)
27	농촌진흥청 (산하기관 포함)
28	산림청·임협중앙회
29	수산청 (산하기관 포함)
10. 4	지방감사(경남·충남)
5	농수산물유통공사·한국냉장
6	농어촌진흥공사
9	농협중앙회
10	수협중앙회
11	축협중앙회
12	농지개량조합연합회 한국식품개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오후2시부터 농림수산부 종합감사
13	농림수산부 종합감사

* 공히 오전10시부터임.

11일개최됐다.

이번 정기국회는 새정치국민회의의 창당으로 4당체제하에서 농지법 등 신규법안 136건과 낙농진흥법 등 국회계류중인 36건 등 총 175건의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농축임업 관련 법안들을 보면 농어촌재해대책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법, 농지법, 낙농진흥법, 비료관리법, 농지개량조합법, 인삼협동조합법, 농어촌진흥법, 식물방역법, 농약관리법, 종자산업법, 인삼산업법, 임업촉진법 등이며 국회 농림수산위 국정감사일정은 표와 같다.

광주전남양계조합

축산물종합판매장 개장

광주전남양계조합(조합장 윤재섭)은 최근 목포시 상동에 축산물종합판매장을 개설했다.

동매장은 1백30여평 규모로 닭고기, 한우고기, 돼지고기, 계란, 우유, 육가공품 등의 각종 축산물과 생활물자 등을 취급하고 있으며, 축산물의 소비촉진에도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사료용 보리, 물감 착색 첫 수입

농림수산부는 지난 11일 금년도 축산사료용 보리 MMA물량 1만4천1백50톤을 빨간 물감을 착색시켜 수입, 배합사료 원료로 사용토록 했다.

이번에 수입된 보리에 물감을 착색한 이유는 일반 식용보리와 명확히 구분, 국내 시장에서의 유통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색깔을 입혀

수입하여 국내 보리 재배농가의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였다.

1%의 할당관세로 수입된 사료용 보리는 사료협회에서 사료업체 24개소와 축협 등 모두 25개소에 각각 배정하게 된다.

서울대부설 축산과학기술연구소 소장에 임경순 교수 선임

서울대 농생대부설 축산과학기술연구소 제2대 소장에 동물자원학과 임경순 교수가 선임됐다.

임경순 교수는 취임사를 통하여 세미나 등의 학술사업을 확대 추진할 것을 밝혔다.

건국대학교

축산경영환경연구소 개설

건국대학교는 지난 8월 25일 축산물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축산경영과 환경문제 개선을 통한 국제경쟁력을 제고키 위해 축산대학내에 축산경영환경연구소를 개설했다.

향후 동소에서는 국내에서 활용되는 각종 축산분뇨처리방법과 경영방법을 경제적 측면에서 분석하여 우리 실정에 적합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할 계획이며, 초대 소장으로 김영철 교수가 선임됐다.

축산 관련 전문지 창간기념일 맞아 거듭남의 계기삼아

축산 전문지로서 양축가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여 국내 축산업의 수준을 한층 높여 놓

은 축산신문, 축산경제신문, 농축유통신문은 지난 28일, 24일, 25일 각각 창립 10주년, 5주년, 5주년을 맞이하여 국내축산분야의 열악한 여건위에 국제화에 따른 개방의 파고로 인해 어려움이 가일층 높아만 가는 현상황에서 전축산 관련인이 힘을 합쳐 우리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뜻을 같이하고 있다.

축산신문은 국내축산업이 부업농에서 전·기업농 형태로의 변혁기였던 '80년대 중반 창간하여 현재까지 축산정론을 펼치며 자타가 인정하는 전문지로 자리 매김을 하고 있으며, 축산경제신문은 개방화, 국제화시대를 온몸으로 맞서며 올바른 언론문화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농축유통신문은 농축산업의 열악한 유통환경속에서도 유통구조개선을 통해 올바른 유통문화 정착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강원도에 축산기술연구센터 설립

강원도는 지난 11일 강원도 종축장 춘천본장과 원주분장을 흡수 통합, 첨단기술을 도입하여 한우와 토종닭을 중점으로 연구하는 축산기술연구센터를 설립키로 했다.

오는 '98년까지 2백90억원을 들여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일대 85만평에 설립예정이며, 이를 위해 지난해 말까지 1백22억원을 들여 부지를 매입한 상태이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이 연구센터를 농가와 직접 접촉하고 움직이는 축산기술의 종합적인 연구센터로 운영하며, 근대화 시설을 갖춘 전국제일의 시험연구기관으로 키워나갈 것이라 밝히고 있다.